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 소통·점검회의」 개최

- 금융지주, 증권사, 보험사와 생산적 금융 추진 계획 논의 -

I. 배경 및 회의개요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의 주체인 금융업권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 소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KB·신한·하나·우리·농협·BNK·iM·JB·메리츠·한국투자 금융지주 및 미래에셋 증권, 키움 증권, 삼성화재,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 등이 참석하였다.

■ **일시/장소** : '25.10.28.(화) 15:3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자본시장국장 등
- (금융업권) KB·신한·하나·우리·농협·BNK·iM·JB·메리츠·한국투자 금융지주, 미래에셋 증권, 키움 증권, 삼성화재, 한화생명, 교보생명 CSO 또는 CFO 등

■ **논의 안건** : ① 생산적 금융의 개념과 추진방안 (금융위원회)
② 생산적 금융 추진 계획 (각 금융사)

II. 부위원장 모두말씀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에 대한 ❶정부와 금융업권의 공감대를 공유하고, 이를 위한 ❷속도감 있는 실천과 ❸실질·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금융업권이 필요한 것을 가감 없이 이야기 해달라고 발언하였다.

이어 생산적 금융은 “금융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본질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면서, 금융시장의 자금이 부동산·담보에 편중된 기존의 방식으로는 금융권과 우리 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금융업권이 스스로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내기 위한 적극적 역할에 나서야할 때라고 하면서,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각·새로운 방식·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융이 산업 혁신생태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와 산업계간 협업과 소통이 중요하고, 금융권이 산업에 대한 선별·평가·관리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산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조직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도 금융업권이 생산적 금융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등 필요한 노력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히고, 지난 9월 19일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제시한 ❶부동산에서 **첨단·벤처·혁신기업**, ❷예금·대출에서 **자본시장 투자**, ❸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3대 전환**과 이를 위한 **3대 분야, 9대 과제**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참고]

권 부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지금이 우리 금융 구조를 전환하고 제도약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형식적 실적 집계와 양적 성과에만 집착하는 ‘무늬만 생산적 금융’에 그쳐선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오늘 참석하신 금융회사별로 생산적 금융 추진 계획을 마련·공유해 주신 만큼 금융위원회가 끝까지 책임지고 소통·점검하여 우리 금융의 구조를 반드시 바꿔 나가겠다고 발언하였다.

이어 11월부터는 금융업권별 협회를 통해 운영 중인 규제개선 TF를 통해 금융권 규제개선 사항 등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정부차원에서 금융감독원·학계 등 전문가들과 규제합리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Ⅲ.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 추진 계획

KB금융지주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구조적인 전환을 위하여 영업방식과 내부 시스템(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심사체계), 조직구조(전담조직 신설) 등 그룹 운영 체계 전반을 개선한다. 또한, ▲증권사 최초로 정부 상생결제시스템 참여* 및 금융지원, ▲국가 반도체산업의 핵심거점이 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대규모 발전 사업 금융주선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제시하였다.

* 구매기업(대기업)이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해 발행한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협력업체)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12개 은행만 취급

신한금융지주는 그룹차원의 통합관리조직(PMO)을 운영 중으로, 미래 첨단 전략산업 등 15대 선도 프로젝트 분야를 지원하는 ‘초혁신경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하나금융지주는 AI·에너지·방산·바이오 등 핵심 성장산업 자금공급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충남지역 지역펀드 결성(0.3조원 규모)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간 모펀드 2호* 확대 조성을 추진한다.

* (1호) 0.1조원 출자, 30개 자펀드 1조원 결성 → (2호) 0.4조원 출자 → 4조원 이상 결성 추진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9월 발표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10대 첨단전략산업 분야 및 관련 전·후방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금융 분야에 AX를 도입하여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적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0월 2일부터 ‘생산적 금융 활성화 TF’ 및 3개 분과(모험자본·Equity, 투·융자, 국민성장펀드)를 운영 중이며, 증권의 IMA 인가 추진을 통한 모험자본 투자 확대, 농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앞장서 추진한다.

BNK금융지주는 ‘생산적금융협의회’를 신설하고 투자생산성 지수와 AI 기반의 심사·관리체계 도입, 동남권투자공사와의 협력 모델 구축, 지역특화산업(해양, 방산, 에너지, 항공 등) 육성을 추진한다. 특히 1호 사업으로 부산 다대포 해상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를 공공·민간·해외금융과 합작하여 추진한다.

iM금융지주는 ‘생산적금융 협의회’를 발족하여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지역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을 수행한다. 또한 초기 스타트업 보육 센터인 피움랩(FIUM-LAB)과 자체 컨설턴트를 통한 기업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JB금융지주는 ‘JB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중심으로 전북·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을 대상 기업금융 공급과 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약상품 공급 확대를 준비 중이다. 또한 비은행 계열사를 통한 벤처, 지역 특화 첨단 산업 및 혁신 스타트업 지분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메리츠금융지주는 ‘IB 플랫폼’으로서 역할에 집중하여 반도체, AI 등 첨단 전략산업, 중소중견기업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최근 2차 전지 업체에 담보 없이 사업성을 기반으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 사례를 참석 기관들과 공유하였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증권을 주력으로 정부공동투자형 IMA상품을 출시하여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혁신기업들에게 초기 성장부터 IPO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은 IMA, 발행어음 등의 상품과 IB비즈니스를 통해 혁신 기업에 기업금융을 제공하고 중소/중견/벤처기업에 모험자본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문투자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벤처투자에 대한 출자도 추진한다.

키움증권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에쿼티 위주 투자 전략을 유지하면서, 자율주행, 2차 전지, 소부장 등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연간 10% 이상의 전문인력 충원 및 육성을 추진한다.

삼성화재는 신재생에너지(풍력,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태양광 등) 중심 생산적 금융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초기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화생명보험은 생보사 장기보험부채의 매칭을 통한 인프라 투융자를 적극 검토하고, 사회기반시설·데이터센터·연료전지·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미래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산업 중심으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교보생명은 국내 인프라부문(도로/철도, 태양광/풍력발전 등) 투자를 확대하고, AI, 로봇틱스, 바이오, ICT 등 첨단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IV. 마무리 발언

권대영 부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대전환 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부위원장 주재 「금융업권 소통·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금융업권의 추진상황 점검과 현장 애로사항 소통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금융업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30)
		담당자	사무관	현지은	(02-2100-2881)
		담당자	사무관	진성익	(02-2100-2882)
담당 부서 <공동>	KB금융지주 전략기획부	책임자	부 장	노경희	(02-2073-7066)
		담당자	팀 장	김승래	(02-2073-2837)
	신한금융지주 전략기획팀	책임자	본부장	이원태	(02-6360-3230)
		담당자	부부장	황희철	(02-6360-3052)
	하나금융지주 전략기획팀	책임자	팀 장	김영훈	(02-317-5949)
		담당자	차 장	송태영	(02-317-5836)
	우리금융지주 전략기획부	책임자	부 장	김도훈	(02-2125-2020)
		담당자	팀 장	김원영	(02-2125-2021)

농협금융지주 기획조정부	책임자	부 장	박찬규	(02-2080-8600)
	담당자	팀 장	조미수	(02-2100-8611)
BNK금융지주 전략기획부	책임자	부 장	박충현	(051-620-3021)
	담당자	부부장	김성용	(051-620-3010)
iM금융지주 전략기획부	책임자	부 장	이제태	(053-740-7991)
	담당자	매니저	윤현수	(053-740-7992)
JB금융지주 종합기획부	책임자	부 장	장재영	(02-2128-2728)
	담당자	부부장	강현석	(02-2128-2733)
메리츠금융지주 경영지원실	책임자	부사장	이동진	(02-2018-6811)
	담당자	차 장	배은하	(02-2018-6824)
한국투자금융지주 경영지원실	책임자	실 장	이재욱	02-3276-4255
	담당자	차 장	김우종	02-3276-4247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부문	책임자	대 표	이강혁	02-3774-2151
	담당자	팀 장	최희영	02-3774-7206
키움증권 경영기획팀	책임자	상 무	김지산	(02-3787-4862)
	담당자	부 장	하진호	(02-3787-3653)
삼성화재 재무기획파트	책임자	파트장	김재홍	(02-758-7619)
	담당자	프 로	이동민	(02-758-4496)
한화생명보험 전략투자기획팀	책임자	팀 장	송현정	(02-789-7381)
	담당자	파트장	주찬희	(02-789-7230)
교보생명 국내대체투자사업팀	책임자	팀 장	박해운	(02-721-2427)
	담당자	과 장	우성훈	(02-721-2423)

참고

「생산적 금융 대전환」 3대 분야, 9대 과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9.19일)

- ◆ ①부동산에서 **첨단·벤처·혁신** 기업으로, ②예금·대출에서 **자본시장** 투자로, ③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금융** **소분야**의 자금흐름 **대전환**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 3대 분야 9대 과제 추진 〉

분야1) 정책금융이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을 선도

- 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α 집중 투자
- ② 장기·스케일업 투자와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를 통한 **벤처금융** 혁신
- ③ 맞춤형 **지역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지역 중심의 에너지전환 지원

분야2) 규제·감독 개선을 통한 민간금융 전환유도

- ① 생산적 자금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산 쓸림을 억제하는 **규제** 개편
- ② **감독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회피 성향 완화
- ③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소상공인 금융** 채널을 재구축

분야3)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를 제공하는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 ① 초기 창업기업 및 중기 성장기업의 자본시장 **자금조달 수단** 확대
- ② 자본시장 Player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
- ③ 상장기업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변모

※ 대통령님 취임 30일 기자회견문(7.3.목)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열립니다. …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